

한국농어촌개발원 출판부

肉鷄 및 鷄卵의 生產費에 對한 調查研究

〈1979. 1. 1~1979. 6. 30〉



尹 孝 稲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교수)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最近 數年間 人口의 增加와 所得水準 向上에 따른 食生活패턴의 變化로 畜產物需要가 增加함으로써 養鷄業은 急進的인 成長을 이루었다.

특히 養鷄業은 적은 資本의 投入으로 生產이 可能할 뿐만 아니라 資本의 回轉速度가 빠르고 大規模의 機械的 管理가 可能하기 때문에 他畜產業에 比하여 迅速히 發展될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데 過去 우리나라의 鷄肉生產을 採卵用老鷄가 主된 供給源이였으나 1962年以後 牛肉과 豚肉生產이 減少되고 美國剩餘農產物의 導入으로 因한 低廉한 飼料의 供給 및 外國으로 부터의 優秀한 種鷄의 導入과 이와 併行하여 國民所得水準이 急激히 向上됨에 따라 短期 大量生產이 可能한 肉鷄

生產이 1965年을 前後하여 急速히 專業化하게 되어 肉鷄生產이 크게 成長하였다.

또한 鷄肉生產에 있어서도 過去 農家副業形態의 生產体制가支配的이었으나 1960年代에 企業化의 與件이 造成되므로써 專業的大規模의 採卵農家數가 크게 增加되어 採卵鷄의 企業化가 이루어 졌던 것이다.

따라서 닭의 飼育首數는 1965년 以來 10年 동안 2倍로 擴大되었고 鷄肉과 鷄卵生產量도 각각 3.8倍와 4倍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肉鷄 및 採卵業이 過去와 같은 높은 成長率을 앞으로도 계속 維持해 나가는 데는 여러가지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養鷄業은 他畜產部問과는 달리 大部分 企業化 되어 있고 養鷄業이 企業으로서의 存立可能性은 利潤擴保에 있음으로 過去와 같이 美國의 利餘農產物의 低廉했던 供給으로 因한 利潤擴保가 可能할 것인가가 커다란 問題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利潤의 擴保는 生產費의 引下에서 實現될 수 있다. 그러나 1972年後 半부터 나타난 國際市場의 飼料價格 引上과 1977年 以後 企業養鷄農家에 對한 所得稅 徵收 및 都市產業의 發達에 따른 農村賃金의 上昇은 生產費를 크게 引上시켜 利潤의 擴保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앞으로 生產될 鷄肉 및 鷄卵을 適正價格水準으로 消費者的需要에 足시키는 反面 生產農家에도 有利한 受取價格을 保障하여 增產을 為한 誘因(Incentives)을 계속적으로 提供하기 為하여 經營改善을 通한 生產引下에 對한 強力한 對策이 講究되지 않을 수 없다.

2. 研究의 日的과 必要性

1) 研究의 目的

우리나라 肉鷄 및 採卵養鷄의 急速한 成長은 이미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一次의 으로 國民所得의 增大와 低廉한 飼料의 安定된 供給에 크게 影響을 받았고 또한 이들 養鷄產物에 對한 消費者的嗜好한 變化한 基因된 것이라 볼 수 있겠으나, 이에 못지 않게 重要한 要因은 生產面이나 價格面에서 他 肉類에 比하여 比較的 有利한 條件을 具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2年度後半부터 나타난 國際飼料價格의 膨貴로 因하여 養鷄業은 커다란 打擊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美國이 中共과 소련에 大量의 穀物을 輸出하게 되므로써 國際飼料穀物市場價格이 크게 下落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導入飼料에 全的으로 依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養鷄業은 1960年代와 같은 好況을 누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養鷄業은 經營改善이나 飼育技術의 向上을 通하여 鷄肉

및 鷄卵增產이 可能하며 比較的 低廉한 肉類를 消費者에게 供給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되므로 經營改善을 為한 積極的인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1980年代 急激히 늘어날 肉類需要에 對處하기 為해서는 草食家畜의 飼育擴大뿐만 아니라 消費者的嗜好度가 높고 他家畜에 比하여 飼料效率이 훨씬 높은 養鷄業의 育成이 講究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本 調查研究는 이와 같은 時代의 要求에 付應하여 우리나라 養鷄農家の 經營現況을 調査分析하고 生產費와 經營費를 算出하여 生產農家の 經營改善을 為한 意思決定(Dicision Making)에 有效한 資料를 提供함과 同時に 生產費를 基礎로 한 價格政策의 實現을 為한 政策的인 資料를 提供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必要性

生產費란 畜產經營에 있어서 特定期間에 特定畜產物의 一定單位量을 生產하기 為해서 消費한 材料 및 投下勞動力과 建物, 農機具의 用役等 이들 價額의 合計額을 生產物의 一定單位量으로 計算한 것이다. 따라서 特定生產物의 生產에서 始作하여 完成品으로 되기 까지의 過程이 生產費 計算의 對象領域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生產費의 調査는 經營이 당해 畜產物을 生產하기 為해서 얼마만한 費用 또는 物財量으로 얼마 만큼 生產할 것인가를 決定하는데 指針이 된다. 즉, 生產計劃의 設定에 必要한 要件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生產費는 經營規模를 決定하는 데 指針이 된다. 즉, 家畜의 飼育頭數가 經營環境에 適合할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決定하는데 必要하여 設備의 改善 및 擴張의 適否를 判定하는데도 必要한 要件이 되는 것이다.

또한 生產비는 生產物의 生產者가 各自의 立張에서 目標價格 또는 希望販賣價格의 意

思決定資料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畜產物價格安定帶의 上限과 下限線의 設定에 必要한 資料가 되는 等個別經營의 立場이나 國家政策의 立場에서 價格 및 經營改善對策資料로서 必要한 것이다.

이리하여 日本에서는 1960年 부터 雞卵의 生產費 調查가 實施되었고, 肉鷄의 生產費는 1966年 實施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0年代 以後 農協과 國立農業經濟研究所 等 調查機關에서 實施하였으나 계속적으로 每年 調查되지 않으므로 1976年 以後 大韓養鷄協會에서 每年 調查, 發表하여 生產者의 經營改善 및 政策決定에 有效한 資料를 提供하고 있으며 本 生產費 調查도 大韓養鷄協會의 支援下에서 위와 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為해서 이루어 진 것이다.

3. 研究方法

1) 調査方法

肉類 및 採卵鷄 飼育農家全体를 調査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問題이므로 우선 大韓養鷄協會의 會員으로 加入된 會員을 中心으로 하여 訓練을 通하여 記錄을 하고 있는 肉鷄 및 採卵鷄 農家를 각各 地域別 飼育規模別로 標本을 有意選定하였다.

그러나 記錄된 資料를 分析하는 도중 不況으로 生產을 中斷한 農家와 記錄이 不完全한相當數의 標本農家는 集計에 利用될 수 없었으며 小數의 누락되거나 誤記된 調査項目에 對해서도 補完調查를 實施하여 修正 補完하였다.

이리하여 標本으로 選定된 農家數와 實際로 集計된 調査農家數에는相當한 差異가 있다.

2) 調査對象地域과 標本規模

調査地域의 選定은 一次의으로 肉鷄 및 採卵養鷄의 中心地인 大都市 近郊地域을 有意

選定하였다. 選定된 調査地域은 서울近郊, 京畿道의 仁川, 水原, 東豆川, 安養, 光州, 慶南의 양산, 金海, 慶北의 大邱近郊와 永川, 慶山, 칠곡, 全北의 全州近郊와 순창, 忠南의 洪城, 大田近郊 等이었으며, 1個 地域當採卵農家 8戶를, 肉鷄農家 8戶를 經營規模別로 有意選定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標本算出方法에 따라 選定된 標本農家는相當數가 不足으로 生產을 中斷하였고, 또한 記錄이 正確하지 못하여 集計에 利用될 수 없었으므로 集計에 利用된 標本農家數와 標本으로 選定된 農家數에는相當한 差異가 있으며 集計에 利用된 規模別 產卵率別 標本數는 다음 表 I-1과 表 I-2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I-1. 飼育規模別 標本農家分布

規模別	區分	標本農家分布	構成比
500首 未滿	5 戶	16.7%	
500~1,000	8	26.7	
1,001~2,000	8	26.7	
2,001~5,000	5	16.7	
5,001首 以上	4	13.2	
計	30	100.0	

表 I-2. 產卵率別 標本農家分布

產卵率別	區分	標本農家分布	構成比
55% 以下	4 戶	13.3%	
56~60%	5	16.7	
61~65%	7	23.3	
66~70%	8	26.7	
71% 以上	6	20.0	
計	30	100.0	

3) 調査對象期間

肉鷄 및 採卵鷄의 生產費에 對한 調査對象期間은 1979年 1月 1日 부터 1979년 6月 30日 까지 6個月間으로 하였다.

II. 採卵養鷄의 經營成果

1. 調查農家의 概況

1) 採卵鷄의 飼育規模別 農家分布

採卵鷄 調查農家の 飼育規模別 農家戶數를 보면 表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首未滿이 16.7%인 5戶이고 501~1,000首 規模의 飼育農家와 1,001~2,000首 規模의 飼育農家가 각각 26.7%인 8戶이며 2,001~5,000首 規模의 飼育農家가 16.7%인 5戶, 5,000首以上의 飼育農家가 13.2%인 4戶이다.

한편 勞動力의 年間投下量을 보면 100首當平均 135.5時間이었으며 自家勞動과 雇傭勞動의 比率은 83%와 17%를 나타내어 自家勞動이 支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2) 產卵率別 農家分布

調查農家の Hen Day Base에 依한 年平均 產卵率은 65.1%이었으며 이를 規模別로 살펴보면 表 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產卵率이 55% 以下의 農家數가 13.3%, 56~60%의 產卵率을 나타내는 農家數가 23.3%, 66~70%의 產卵率을 維持한 農家數가 가장 많은 26.7%이며, 70% 以上的 產卵率을 보이는 農家數가 20%이었다.

한편 調查農家の 平均 育成率을 보면 91.2%로서 아직도 1950年代 美國의 廢死率 10%의 水準이며 美國은 1960年代 廢死率을 3%로大幅減少할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1969年에 10.6%에서 겨우 1%未滿의 減少를 가져왔으므로 아직도 우리나라 養鷄業은 量的인 發展은 가져왔으나 質的인 發展을 가져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生產效率의 低下를 招來하는 要因을 正確히 把握하여 이러한 沮害要因을 除去하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2. 產卵鷄의 育成費

產卵鷄의 育成費를 算出하기 為한 對象期間은 鷄卵生產費 調查期間인 1979年 1月 1日부터 1979年 6月 30日 사이에 병아리를 入籬하여 이期間에 育成이 完了된 育成鷄群으로 하였으며 育成期間을 150日로 하였다.

調查農家の 首當 average育成費로 表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90원이었으며 이는 昨年の 首當 育成費 1,966원에 比하면 6.3%인 124원이 增加되었으며 引上率은 昨年に 比해 6.3%에 不過하다.

이와 같은 育成費의 引上率이 例年에 比하여 낮은 것은 鷄의 병아리 過剩生產으로 병아리 값이 相對的으로 引上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費目別로 살펴보면 飼料費가 51.4%인 1,098원으로 가장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나 1978年에는 52.7%인 1,058원으로 費目別構成比는 1.3%가 引下되었다. 이러한 現象을 今年初 養鷄의 不況으로 因하여 育成에 投入되는 飼料以外에 他 產生要素의 價格이 크게 引上 되었으며, 또한 飼料量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料된다.

表 II-1. 產卵鷄 育成費(首當)
(단위: 원)

費目別	區分	金額	比率
병아리購入費		329	15.4%
飼料費		1,098	51.4
勞動費		306	14.3
減價償却費		79	3.7
防疫治療費		34	1.6
諸材料費 및 雜費		87	4.1
資本利子		192	9.0
地代		11	0.5
費用計(A)		2,136	100.0
副產物收入(B)		46	
差引生產費(A-B)		2,090	

한번 병아리 購入費로 15.4%인 一首當 329 원으로서 1978 年度의 15.9%인 319 원에 比 하면 價格은 10 원이 引上되었으나 費目別 構成比는 0.5% 引下되었다. 이는 作年度에 外國產 種鷄의 大量導入으로 병아리 供給量이 많아서 相對的으로 그 價格이 下落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勞力費는 自家勞動과 雇傭勞動을 合하여 14.3%인 306 원으로서 昨年度의 11.7%에 比하여 2.6%가 引上되었는데 이는 勞賃의 上昇에 基因된 것이다.

또한 資本利子는 9.0%인 192 원이고 諸材料費 및 雜費는 4.1%인 87 원이며 建物 및 農機具의 減價償却費는 3.7%인 79 원, 防疫治療費는 1.6%인 34 원, 地代는 0.5%인 11 원이다.

이와 같은 分析結果에 依하면 產卵鷄 首當育成費의 引下를 為해서는 飼料效率의 增大로 因한 飼料費의 節減을 勿論 飼育規模에 따라 首當 育成費에서도 差異를 나타내고 있음으로 大規模經營의 經濟的 優越性의 反映을 通하여 勞力費와 병아리 購入費 等 諸費用의 節減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鷄卵生產費와 經營費

調查農家の 鷄卵 100 個當 平均生產費는 表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53 원으로서 副產物収入을 除外한 差引生產費는 3,229 원으로서 個當 平均生產費는 32.29 원이다.

이를 費目別 構成比로 보면 飼料費가 60.6%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였으나 昨年の 64.9%에 比하en 4.3%가 引下되었다. 이러한 現象은 飼料費를 除外한 他投入財貨의 價格이 크게 上昇하는 反面 飼料價格은 統制價格으로 크게 引上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鷄卵價格의 暴落으로 因하여 飼料의 投下量을 多少 줄인 데 緣由된 것으로 料料된다.

表II-2. 鷄卵生產費(鷄卵 100個當)
(單位: 원/100個當)

費目別	區分	金額	構成比
產卵 鷄償却費		607	18.1%
飼 料 費		2,034	60.6
減 價 償 却 費		112	3.3
勞 力 費	自家	200	6.5
	雇傭	73	2.3
防 疫 治 療 費		47	1.4
水 道 光 熱 費		10	0.3
修 理 費		3	0.08
小 農 機 具 費		1	0.02
交 通 通 信 費		5	0.15
諸 材 料 費		3	0.09
其 他 費 用		9	0.3
資本利子	自己	193	5.8
	借入	2	0.06
地 代	自己	34	1.0
	借用	-	-
費 用 計		3,353	100.0
副 產 物 収 入		124	
差 引 生 產 費		3,229	

그리고 產卵鷄의 減價償却費는 18.1%이고 勞力費는 自家勞力費 6.5%, 雇傭勞賃 2.3%로서 勞賃大幅의 上昇으로 昨年의 6.2%와 1.6%에 比하여 多少 引上되었으며 借入資本利子와 自己資本利子는 昨年的 14.7%와 1.5%에서 今年에는 5.8%와 0.06%로서 크게 引下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現狀도 鷄卵價格이 크게 下落함으로써 投下資本額을 減少시켰으며 借入資本의 使用을 減少시킨 데 緣由된 것이다

또한 建物과 農機具의 償却費는 3.3%, 修理費는 0.08%, 小農具費 0.02%, 交通通信費 0.15%, 諸材料費 0.09%, 其他雜費 0.3%, 自作地代 1.0%로서 이를 費目別 構成比도 昨年에 比하여 全部 낮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費目別 構成比가 產卵鷄償却費를 除外하고 水道光熱費와 勞賃이 多少 커진데 反하여 全般的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에너지波動 以後 燃料費의 引上과 勞賃이 크게 上昇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鷄卵價格의 大幅의 下落으로 資本과 用役의 投下量을 節減한데 基因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鷄卵 個當 生產費는 32.29 원으로서 今年度 1月부터 6月까지 鷄卵 個當 月平均 產地價格은 26.56 원으로 個當 5.73 원의 損害를 보게 되었으므로 今年度 採卵農家の 經濟的 被害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產地市場價格에서는 飼育規模가 적은 農家の 經濟的 被害는 더욱 큰 바 表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首 以下의 飼育農家에서는 個當 生產費가 35.88 원으로 個當 9.32 원의 損害를 보게되고, 501~1,000首 規模는 個當 生產費가 34.38 원으로 個當 7.82 원의 損害를, 1,001~2,000首 規模는 個當 生產費 32.71 원으로서 6.15 원의 損害를, 2,001~5,000首 規模는 個當 生產費 31.67 원으로 5.11 원의 損害를, 5,000首 以上 規模는 個當 31.15 원의 生產費로 4.59 원의 損害를 보게 되므로서 經營規模가 큼에 따라 大規模의 經濟的 有利性에 依하여 損害를 적게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產卵律別 生產費와 鷄卵產地價格을 對

表Ⅱ-3. 飼育規模別 生產費

		(單位·원/100個)
規模別	區分	生産費
500首 以下		3,588
501~1,000		3,438
1,001~2,000		3,271
2,001~5,000		3,167
5,001首 以上		3,115
平 均		3,229

比하여 보면 今年과 같은 鷄卵價格下에서는 높은 產卵率을 維持하였어도 損失을 免할 수 없었던 바 表Ⅱ-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60% 以下의 產卵率에서는 個當 生產費가 35.26 원으로서 個當 8.70 원의 損害를 보게 되었고, 61~65%의 產卵率에서의 生產費는 34.01 원으로서 個當 7.45 원, 66~70%의 產卵率에서 生產費는 31.91 원으로 個當 損害가 5.41 원, 71% 以上에서는 生產費는 31.16 원으로서 個當 4.60 원의 損害를 보게 되므로서 今年과 같은 價格下에서는 높은 產卵率을 維持한다 하더라도 生產費의 補償은 不可能하였다.

表Ⅱ-4. 產卵率別 生產費 (單位: 원/100個)

產卵別	區分	生產費
60%以下		3,526
61~65%		3,401
66~70%		3,197
71%以上		3,116
平 均		3,229

한편 鷄卵 生產의 經營費의 構成內容을 보면 表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鷄卵 100個 經營費는 2,906 원 이었고 生產費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86.7%를 나타내고 있다. 그려므로 採卵農家の 所得構產內容이 되는 自家勞賃은 生產費中 6.6%인 100個當 220 원, 自己資本利子는 5.7%인 193 원, 自作地代는 1.0%인 34 원에 不過한 것이었다.

4. 採卵農家の 經營成果

1) 粗收入

調查農家の 戶當 平均粗收入을 飼育規模別로 살펴보면 表Ⅱ-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首 以下의 採卵鷄 飼育農家에서는 戶當 粗收入이 1,347,400 원이였으며 이中 鷄卵 販賣收入이 98%인 1,265,700 원이고 副產物 収

費目別	區分	金額	構成比
產卵鷄償却費		607	18.1%
飼料費		2,034	60.7
減價償却費		112	3.3
雇傭勞力費		73	2.2
防疫治療費		47	1.4
水道光熱費		10	0.3
修理費		3	0.1
小農機具費		1	0.03
交通通信費		5	0.15
諸材料費		3	0.1
其他雜費		9	0.27
借入資本利子		2	0.05
賃借地代		-	-
經營費計		2,906	86.7
自家勞力費		220	6.6
自己資本利子		193	5.7
自己土地資本利子		34	1.0
生產費計		3,353	100.0

입이 81,700 원이었다. 501~1,000 首 規模의 農家에서는 粗收入이 2,330,500 원이었으며 이中 鷄卵販賣收入이 2,218,000 원이었고 副產物收入이 112,500 원이었다. 1,001~2,000 首 規模의 農家는 粗收入이 5,068,600 원었으며, 이中 主收入源인 鷄卵販賣收入이 11,630,200 원이었으며 副產物收入이 517,300 원이었고, 5,000 首 以上 規模의 戶當 粗收入은 24,684,000 원이었으며 이中 鷄卵販賣收入이 23,665,200 원이었고 副產物收入이 1,018,800 원이었다.

이와 같이 飼育規模에 따라 戶當 粗收入은 커다란 差異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飼育規模別 戶當 粗收益은 1978 年度와 比較하여 보면 500 首 以下가 2,910,000

表 II-6. 飼育規模別 戶當 粗收入 粗

(單位: 千원)

規模別	區分	鷄卵販賣額	副產物收入	計
500首 以下 (450首)		1,265.7	81.7	1,347.4
501~1,000 (750首)		2,218.0	112.5	2,330.5
1,001~2,000 (1,500)		4,831.6	237.0	5,068.6
2,001~5,000 (3,500)		11,630.2	517.3	12,147.5
5,000首 以上 (7,000)		23,665.2	1,018.8	24,684.0

註: ()內는 階層別 平均 飼育首數임

원이었고, 501~1,000 首 規模가 5,913,000원, 1,001~5,000 首 規模가 16,473,200원 5,000 首 以上 規模가 50,837,000원으로서 비록 6個月에 該當되는 것이기는하나 相對的으로나, 絶對的으로 粗收入額이 적음을 알 수 있다.

2) 飼育規模別 戶當 收益性

앞에서 飼育規模別 戶當 粗收入을 살펴 보았으나 이를 根據로 하여 粗收入에서 經營費를 除한 戶當 所得과 粗收入에서 生產費를 除한 純收益을 飼育規模別로 살펴보면 表 II-7에서 보는 바와 같다.

調查農家の 飼育規模別 所得을 살펴보면 500 首 以下의 農家 戶當 所得은 -263,700 원이었으며 501~1,000 首 規模의 農家는 -269,300 원이었고, 2,001~5,000 首 規模의 農家는 -128,100원이었으며 5,000 首 以上 規模의 農家는 -214,000원으로서 이러한 飼育規模下에서는 所得마저 없었으며 오로지 2,001~5,000 首 規模만은 321,600원의 所得을 올렸을 뿐이다.

이러한 事實에서 볼 때 飼育規模가 500 首 未滿에서 1,000 首 規模에서 가장 復害가 甚하였고 5,000 首 以上 規模에서도 이와 비슷한 損失을 가져왔다. 이는 小規模와 大規模經營에서는 資本과 勞動의 效率化를 期하지 못한 대서 緣由되었고, 1,001~2,000 首 規模에서는 產卵率이 他規模에 比하여多少 높고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表II-7. 飼育 規模別 戶當 収益性

(單位 : 千원)

規模別	區分	粗収入	經營費	生産費	所 得	純収益
500首 以下	(450)	1,347.4	1,611.1	2,044.4	△ 263.7	△ 697.0
500~1,000	(750)	2,330.5	2,599.8	3,091.8	△ 269.3	△ 761.3
1,001~2,000	(1,500)	5,068.6	4,747.8	6,026.6	321.6	△ 958.0
2,001~5,000	(3,500)	12,147.5	12,275.6	13,403.1	△ 128.1	△ 1,255.6
5,000首 以上	(7,000)	24,684.0	24,898.0	27,543.1	△ 214.0	△ 2,859.1

높고 資本과 勞動의 效率化를 期하여 單位當經營費를 引下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程度의 所得을 獲得할 수 있었다.

한편 飼育規模別 純收益의 内容을 살펴 보면 500首 이하에서는 697,000원의 損害를 501~1,000首 規模는 761,300원의 損害를 1,001~2,000首 規模에서는 958,000원을, 2,001~5,000首 規模에서는 1,255,600원, 5,000首 以上 規模에서는 2,859,100원의 經濟的 損害를 보게 되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採卵業이 企業으로서의 存立可能性은 純收益의 存在與否에 달려 있다. 그러나 예년과 같이 純收益의 發生은 커녕 莫大한 損失을 보게 되는 價格條件下에서는 企業으로서의 採卵業은 經營을 中斷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因한 產卵鷄의 急激한 減少는 不可避한 것이다.

이러한 事實에서 볼 때 오늘날 破產되는 採卵農家數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當然한 現象이 아닐 수 없으며 政策的인 配慮가 없는 限資本의 뒷받침이 弱한 採卵農家는 倒產의 危機를 免할 수 없다.

III. 肉鷄 飼育의 經營成果

1. 調查農家の 概況

肉鷄 飼育規模를 測定하는 데 使用되는 指標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本 調查에 있어서는

調査期間中의 初生雛 購入首數 累計를 肉鷄 飼育規模를 나타내는 指標로 使用하였다.

初生雛 購入首數에 依한 飼育規模別 標本農家數는 表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首 未滿의 標本農家數가 12%인 5戶, 2,000~5,000首 規模의 農家數는 16.7%인 7戶, 5,000~10,000首 規模의 農家數는 19%인 8戶, 10,000~30,000首 規模의 農家數는 35.6%인 15戶이며, 30,000首 以上의 農家數는 16.7%인 7戶로서 總標本農家數는 42戶였다.

表III-1. 飼育 規模別 標本農家分布

規模別	區分	標本農家戶數	構成比
2,000首 未滿	5戶	12.0%	
2,000~5,000	7	16.7	
5,000~10,000	8	19.0	
10,000~30,000	15	35.6	
30,000首 以上	7	16.7	
計	42	100.0	

이를 育成率別로 살펴 보면 表III-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80% 未滿의 農家戶數가 8.7%인 4戶, 81~85%의 農家戶數는 11.3%인 5戶, 86~90%의 農家戶數는 15.4%인 6戶, 91~96%의 農家戶數는 31.4%인 13戶, 96% 以上의 育成率을 나타낸 農家戶數가 33.2%인 14戶로서 91% 以上이 64.6%인 27戶임을 알 수 있다.

表III-2. 育成率別 標本農家分布

育成率別 區分	農家戶數	構成比
80% 以下	4 戶	8.7%
81~85%	5	11.3
86~90 "	6	15.4
91~95 "	13	31.4
96 以上	14	33.2
計	42	100.0

한편이들 調査農家の雇傭勞動의構成比를 보면 者家勞動의 投下가 79%이고 雇傭勞動은 21%로서 採卵農家보다 雇傭勞動의構成比가 높다. 이는 投下勞動量이 肉鷄가 採卵鷄보다 많기 때문이다.

또한 肉鷄의 飼育日數는 品種과 飼育規模에 따라 약간의 差異가 있으나 平均 61日이며 販賣時 生體重量은 平均 1.62kg이다.

2. 肉鷄生產費와 經營費

肉鷄生產費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은 飼育首數, 育成率, 飼料效率 等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調査農家の 生體 10kg當 總生產費는 7,052 원으로서 副產物收入을 除外한 差引生產費는 6,949 원으로서 生體 kg當 694.90 원이다.

이를 費目別로 살펴 보면 表I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生體 10kg當 병아리 購入費가 15.9%인 1,122 원, 昨年의 22.4%인 1,427 원보다 6.5%가 引下되었는데 이는 外國의 肉用種鷄의 大量導入으로 因한 병아리의 供給과잉에 因된 것이며 飼料費가 58.5%인 4,122 원으로서 昨年의 55.1%인 3,513 원에 比하여 3.4%가 늘어 났다.

또한 勞賃의 比率은 12.7%인 897 원으로서 昨年의 10.8%인 686 원에 比하여 勞賃上昇으로 1.9%가 增加되었다. 그리고 水道光熱費가 1.7%인 122 원, 固定資本의 減價償却費가

表III-3. 生產費

(單位: 원/生體10kg)

費目別 區分	金額	構成比
병아리購入費	1,122	15.9%
飼料費	4,122	58.5
水道光熱費	112	1.7
減價償却費	193	2.7
防疫治療費	135	1.9
勞力費	824	11.7
自家	73	1.0
雇傭	16	0.23
修理費	2	0.05
小農機具費	6	0.1
交通通信費	27	0.4
諸材料費	9	0.13
其他費用	348	4.9
資本利子	38	0.54
自己	13	0.2
借入	2	0.05
地代	7,052	100.00
自己	103	
借用	6,949	
費用合計		
副產物收入		
差引生產費		

費가 2.7%인 193원, 防疫治療費가 1.9%인 135원 修理費가 0.23%, 小農具費가 0.05% 交通通信費가 0.1%, 諸材料費 및 其他雜費가 0.53%, 地代가 0.25%이다.

한편 調査農家の 生體 10kg當 平均 經營費를 보면 表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867 원이며 이를 費目別로 보면 飼料費가 58.5%로서 가장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고, 병아리 購入費가 15.9%로서 昨年度의 飼料費 52%와 병아리 購入費 21%와 比較하면 병아리 購入費의 比重이 크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自家勞賃은 11.7%, 雇傭勞賃은 1%로서 自家勞賃은 昨年의 8.6%보다多少增加되었고, 水道光熱費가 1.73%인 122 원, 減價償却費가 2.7%인 193원, 防疫治療費가 1.91%인 135원, 修理費가 0.23%, 小農具費

가 0.03%, 交通通信費가 0.10%, 諸材料費 및 其他雜費가 0.53%, 借入資本利子가 0.54%, 借入地代가 0.03%로서 總生產費中에서 차지하는 經營費의 比重이 83.2%이다.

表III-4. 經營費와 生產費

(單位: 원/生体10kg)

費目別	區分	金額	構成費
병아리購入費		1,122	15.9%
飼料費		4,122	58.5
水道光熱費		122	1.73
減價償却費		198	2.70
防疫治療費		135	1.91
雇傭勞力費		73	1.00
修理費		16	0.23
小農機具費		2	0.03
交通通信費		6	0.10
諸材料費		27	0.40
其他費用		9	0.13
借入資本利子		38	0.54
賃借地代		2	0.03
經營費計		5,867	83.2
自家勞力費		824	11.7
自己資本利子		348	4.9
自己土地資本利子		13	0.2
生產費計		7,052	100.0

그런데 生產費를 飼育規模別로 살펴 보면 表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首 未滿의 規模에서는 肉鷄 10kg當 7,189원 2,000~5,000首 規模는 7,179원, 5,000~10,000首 規模는 6,531원, 10,000~30,000首 規模는 6,712원, 30,000首 以上 大規模에서 가장 높은 生產費인 7,257원을 나타내서, 5,000~10,000首 規模가 가장 낮은 것과 比較가 된다.

이러한 事實은 5,000~10,000首 規模가 今年과 같은 肉鷄價格과 投入物價格條件下에서 最適의 規模이며, 育成率은 가장 높은 反面 資本과 労

動의 效率化를 期하여 生產費를 引下 시킬 수 있었으며 30,000首 以上은 이와 反對로 育成率이 낮고 資本과 勞動의 非效率的 使用에 依하여 平均固定費用과 平均流動費用을 크게 하여 單位當 生產費를 높인 基因된 것이다.

表III-5. 飼育 規模別 生產費

(單位: 원/10kg)

規模別	區分	生產費
	2,000首未滿	7,189
	2,000~5,000	7,179
	5,000~10,000	6,531
	10,000~30,000	6,712
	30,000以上	7,257
	平均	6,949

한편 育成率別 生產費를 보면 表I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育成率이 80% 未滿이 生體 10kg當 7,019원, 81~85% 水準이 7,008원, 86~90% 水準이 6,998원 91~95% 水準이 6,979원이며, 96% 以上이 6,734원으로서 產卵率이 높음에 따라 平均費用이 減少되므로 生產費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III-6. 育成率別 生產費

(單位: 원/10kg)

育成率別	區分	生產費
	80%未滿	7,019
	80~85%	7,008
	86~90%	6,998
	91~95%	6,979
	96%以上	6,734
	平均	6,949

以上 生產費 分析을 通하여 1979年 1月부터 6月까지 肉鷄 生體 kg當 生產費는 694.90원이고 經營費는 586.70원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同期中 肉鷄의 產地市場의 平均價格 은 603.33원이므로 生產農家는 生體 kg當 91.57원의 損害를 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價格下에서는 96%以上의 育成率을 維持하는 農家라 하더라도 生體 kg當 70 원의 損失을 보지 않을 수 없고 80% 未滿의 育成率을 維持하는 肉鷄 飼育農家는 生體 kg當 98.57원의 커다란 經濟的被害를 免할 수 없었다.

이를 飼育規模別로 보면 2,000首 未滿의 飼育規模에서는 115.57원, 2,000~5,000首 規模는 114.57원, 5,000~10,000首 規模는, 49.77원, 10,000~30,000首 規模는 67.87원, 30,000首 以上 規模에서는 122.37원이 각各 生產費에 未達하므로 莫大한 經濟的 損失을 보게 된 것이다.

3. 肉鷄飼育의 經營成果

1) 粗收入

肉鷄飼育農家의 戶當 粗收入은 鷄肉 販賣收入과 副產物收入으로 構成되어 있는 바 調查農家의 戶當 粗收入을 飼育規模別로 살펴 보면 表III-7에서 示唆하는 바와 같이 2,000首 未滿의 規模에서도 1,455,600원으로서 이中 鷄肉 販賣收入이 98.2%인 1,429,400원이고 副產物 販賣收入이 1.8%인 26,200원이며, 2,000~5,000首 規模에서는 2,463,800원으로서 이中 鷄肉 販賣收入이 98.1%인 2,417,000원이고 副產物收入이 46,800원이며, 5,000~10,000首 規模는 7,537,300원으로서 鷄肉 販賣收入이 98.5%인 7,421,300원이고 副產物收入이 1.5%인 116,000원이며, 10,000~30,000首 規模는 15,188,100원으로서 이中 鷄肉 販賣收入이 98.1%로 14,899,400원이고 副產物收入이 288,700원이며, 30,000首 以上 規模에서는 24,887,500원으로서 이中 鷄肉 販賣收入이 98.2%인 24,439,400원이다.

表III-7. 飼育 規模別 戶當 粗收入

(單位: 千원)

規模別	區分	鷄肉販額	副產物收入	計
2,000首 未滿(1,500)	1,429.4	26.2	1,455.6	
2,000~5,000首(2,500)	2,417.0	46.8	2,463.8	
5,000~10,000首(7,500)	7,421.3	116.0	7,537.3	
10,000~30,000首(15,000)	14,899.4	288.7	15,188.1	
30,000首 以上(25,000)	24,439.4	448.1	24,887.5	

이와 같은 事實에서 볼 때 飼育規模가 커짐에 따라 戶當 粗收入은 級何級數의로 增加됨을 알 수 있으며, 肉鷄의 販賣價格이 生產費에 크게 미치지 못할 때는 小規模의 飼育農家보다 大規模의 飼育農家가 보다 커다란 經濟的 打擊을 받지 않을 수 없다.

2) 飼育規模別 戶當 收益性

以上 肉鷄의 經營費와 生產費를 算出 함으로써 이를 根據로 하여 飼育規模別 戶當 所得과 純收益을 導出하여 보면 表I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首 未滿의 飼育規模에서는 戶當 所得이 11,700원이 取得되었고, 戶當 純收益은 오히려 -485,400원이었으며, 2,000~5,000首 規模에서는 所得이 -28,200원이고, 純收益도 -766,900원으로서 이 規模에서는 所得과 純收入이 모두 負로 나타났다. 그리고 5,000~10,000首 規模에서는 所得이 334,500원이 發生하였고 純收益은 -1,279,500원이었으며 10,000~30,000首 規模에서는 所得이 -208,500원, 純收益도 -2,934,400원이었으며, 30,000首 以上 規模에서의 所得은 -3,577,800원, 純收益도 -7,768,200원이였다.

이러한 事實에서 볼 때 飼育規模가 2,000首 未滿 및 5,000~10,000首 規模에서만 育成率과 飼料效率의 增大 및 效率의 生產要素의 使用으로 겸우 小額의 所得이 發生했을 뿐, 其他 飼育規模에서는 所得이 發生되지 않고 飼

表III-8. 飼育 規模別 戶當 収益性

(單位 : 千원)

規模別	區分	粗 収 入	經營 費	生 產 費	所 得	純 収 益
2,000 首 未 滿		1,455.6	1,443.9	1,941.0	11.7	△ 485.4
2,000~5,000		2,463.8	2,492.0	3,230.7	△ 28.2	△ 766.9
5,000~10,000		7,537.3	7,202.8	8,816.8	334.5	△ 1,279.5
10,000~30,000		15,188.1	15,396.6	18,122.8	△ 208.5	△ 2,934.4
30,000首 以 上		24,887.5	28,465.3	32,655.7	△ 3,577.8	△ 7,768.2

育規模가 커짐에 따라 比例하여 損失이 많이發生하고 純收益은 飼育規模가 커짐에 따라比例하여 負의 純收益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企業的인 肉鷄 飼育農家는 이와 같은 利潤의 擴保는 커녕 莫大한 經濟的 損失로 飼育規模를 크게 줄이거나, 資本力이 弱한 農家는 倒產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價格條件下에서는 企業으로서의 養鷄는 存在할 수 없다.

IV. 結 論

以上 肉鷄 및 採卵養鷄農家の 經營實態에 對한 分析을 通하여 肉鷄 및 鷄卵의 生產費와 經營費를 算出하여 이를 肉鷄 및 採卵農家の 戶當 所得과 純收益을 밝힘으로써 今年 養鷄農家の 經營成果를 把握하였다.

무엇보다 今年은 過去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을 程度로 肉鷄 및 鷄卵價格이 經營費와 生產費에도 크게 未達함으로 採卵 및 肉鷄飼育農家の 赤字가 累積되어 經濟的被害가 너무나 커서 많은 農家가 倒產했거나, 앞 으로도 倒產할 農家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豫想된다.

勿論 이와 같은 價格暴落은 需要의 側面에서 볼 때 1976年 쇠고기의 大量輸入으로 이의 相對的 價格下落이 一般消費者의 쇠고기 偏重消費現象을 舉起시킨 데도 原因이 있고 에너지波動 以後 一般消費者의 消費節約運動

에도 緣由되고 있으며, 供給面에서 볼 때 1974年 以後 계속적인 養鷄 景氣의 好況과 이에 併行하여 昨年度 外國種鷄의 大量導入으로 供給量이 크게 늘어난 데 그 主된 原因이 있다.

以上 調查分析結果에 依하여 나타난 經營 成果를 要略하면 採卵養鷄에 있어서 產卵鷄首當 育成費는 2,090원이고, 鷄卵 個當 生產費는 32.29원이며 經營費는 29.06원이었다.

이를 계란 生產費의 費目別 構成比로 보면 飼料費가 60.6%, 產卵鷄 償却費가 18.1%, 勞賃은 8.8%, 資本利子가 5.86%로서 昨年에 比하여 勞賃의 比率이 크게 늘어났고 飼料費의 比重이 낮아졌다.

한편 今年 1月 부터 6月 末까지 鷄卵 個當 生產費는 32.29원이며 같은 期間의 鷄卵 平均產地市場價格은 26.56원으로 生產費에 比하여 個當 5.73원이 未達하므로써 戶當 収益性은 500首 以下의 飼育規模에서 所得이 -263,700원, 純收益이 -697,000원이었고, 501~1,000首 規模에서는 각각 -269,300원과 -761,300원, 2,001~5,000首 規模에서는 각각 -128,100원과 -1,255,600원, 5,000首 以上 規模에서는 각각 -214,000원과 -2,859,100원으로 이를 飼育規模에서는 共히 所得과 純收益이 負로 나타났고, 1,001~2,000首 規模에서만 321,600원의 所得이 發生했고 純收益은 -958,000원이었다.

한국농어촌신문 1961년 1월호

또한 肉鷄의 경우에 있어서는 肉鷄 生體 kg當 生產費는 694.90원이었고, 經營費는 586.70원이었으며, 育成率別 生產費는 育成率 80% 未滿이 701.90원이고, 81~85% 水準이 700.80원, 86~90% 水準이 699.80원, 91~95% 水準이 997.90원, 96% 以上이 673.40원으로서 育成率이 높아짐에 따라 生產費는 조금 引下되나 96% 以上의 育成率을 維持한다고 해도 kg當 價格 603.33원에 比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生產費를 費目別로 살펴 보면 飼料費가 58.5%로서 昨年에 比하여 3.4% 늘어났고, 병아리 購入費 15.9%로서 昨年에 比하여 6.5% 줄어 들었으며 労賃은 12.7%로서 昨年보다 2%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今年 1月 부터 6月까지 肉鷄 生體 kg當 生產費는 694.90원이며 同期間 肉鷄 kg當 平均產地價格은 603.33원으로서 生產費에 比하여 kg當 89.57원이 未達함으로써 戶當 収益은 飼育規模別로 볼 때 2,000首 未滿은 所得이 11,700원이 發生하고 純収益은 -485,400원이었고 2,000~5,000首 規模에서는 戶當 所得이 -28,200원 純収益은 -766,900원이었다. 그러나 5,000~10,000首 規模의 農家에서는 334,500원의 所得이 發生했고 純収益은 -1,279,500원이었다. 그리고 10,000~30,000首 規模에서는 所得이 -208,500원, 純収益이 -2,934,400원이었으며 30,000首 以上의 規模에서는 戶當 所得이 -3,577,800원, 純収益이 -7,768,300원이었다.

이러한 事實에서 볼 때 2,000首 未滿의 飼育農家와 5,000~10,000首 規模의 農家에서만 所得이 發生하고 純収益은 飼育規模가 커

짐에 따라 比例하여 커다란 赤字를 나타내고 있으며 採卵鷄 飼育農家보다 肉鷄 飼育農家의 戶當 赤字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以上 肉鷄 및 採卵鷄 飼育農家의 經營分析에서 볼 때 供給過剩으로 因한 價格暴落이 얼마나 甚覺하며 이를 對處하기 為한 方案의 講究와 앞으로 계속되는 飼料價格의 引上에 對한 對策을 세우지 않는 限養鷄業의 健全한 發展을 期待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養鷄業을 他畜產業을 앞질러 1960年代 急速한 成長을 보였으나 飼料效率, 產卵率, 育成率, 單位當 生產費는 美國의 1960年代 水準에 머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養鷄業의 健全한 發展을 為하여 技術的인 側面에서 生產效率의 增大方案이 講究되어야 하며, 이를 為해서는 果敢히 進步된 飼育技術의 導入은 勿論 優良種鷄의 育成 및 飼料質의 向上을 通한 飼料效率을 增大시켜야 하며 產卵率과 育成率을 높이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併行하여 經濟的 側面에서는 계란과 肉鷄의流通을 改善하여 供給量을 生產者 스스로가 調節하여 價格이 安定될 수 있도록 生產体制의 水平 및 垂直統合(Horizontal and Vertical Integration)이 이루워 지도록 해야 한다.

언제나 飼育農民에 不利한 飼料價格의 계속적인 上昇과 肉鷄 및 鷄卵 價格의 下落勢가 늘 存在하고 있음으로 이를 克服하기 為서 해는 위에서 提示한 方案이 實現되어야 하며, 그렇게 됨으로서 今年과 같은 莫甚한 經濟的 被害를 防止할 수 있고 健全한 發展을 持續 할 수 있을 것이다.

극심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모두 생산조절에 힘씁시다